

인터뷰

“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버스를 움직이죠”

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여기사

최병헌 기자 chbh1027@khu.ac.kr

#. 매일 아침 회기역은 동대문 01번 마을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빈다.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면 이 인파는 정류장을 벗어나 회기역 계단 위까지 이어지기 일쑤다. 서울캠퍼스 학생의 등학교는 물론 경희의료원을 찾는 환자, 그리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요가 몰려 버스 안팎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. 이 전쟁통 속에서 나그나그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승객을 맞이하는 버스기사가 있다. 지난 25일, 평범한 세 아이의 엄마이자 지난 십 수 년 간 버스운전대를 잡아온 김진순(42) 기사의 하루를 엿봤다.

10년 동안 학원버스 운전을 해온 베테랑 운전수 김진순 기사는, 올해 3월 초 15학번 신입생이 갓 입학하던 때부터 마을버스 일을 시작했다. ‘새내기 마을버스 기사’ 김 기사는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한다. 아직 여명도 밝지 않은 새벽 4시 반에 이미 김

기사는 회기역에 출근해 있다. 버스 연료를 충전하고 청소를 하며 운행준비를 마친 후 동료 기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다 보면 시간은 어느덧 5시 55분, 첫 차가 승객을 실을 시간이다. 충분히 피곤할 법함에도, 김 기사는 “몸은 고단하지만 승객을 맞이하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겁다”고 말한다.

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하루 중 가장 정신없고 바쁜 시간은 통학시간과 맞물리는 오전 9시와 10시 30분 전후다. 이 시간대에는 총 5대의 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전부가 운행되는데, 항상 만원이다. “한가한 시간대에는 반대차선의 마을버스랑 마주치면 기사들끼리 손짓으로 가볍게 장난을 칠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, 이 시간대에는 서로 간에 운행상황을 알려주는 수신호를 보내며 일에만 집중한다”는 것이 김 기사의 설명이다.

“이 시간대에는 어쩌나 바쁜지 회기역 정류장에 소위 ‘푸쉬맨’이 등장하기도 해요. 이 푸쉬맨은 본래 우리 회사 과장님이신데, 사실 겉모습은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런데 원래 성격이 좀 무뎡뎡하신 편이라, 승객 분들이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(웃음)”

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사마다 30분 가량의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. 그리고 보통 이 시간대에 교대로 점심식사를 해결한다.



회기역에서 정문을 오가는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우리학교 방문자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다

점심 시간을 제외하고, 김 기사는 회기역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짧은 노선을 하루 18시간 동안 쉼 없이 반복해서 운행한다.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가장 짧은 시내버스노선(0.8km)이다. 짧은 거리지만, 결코 만만하지 않다. 하루에도 같은 길을 수십 차례 왕복해야 하기 때문이다.

“하루는 동료기사가 하루에 보통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해서 세어봤는데, 왕복 70번까지 세다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짧은 노선을 반복적으로 다니니 지루할 것 같지만,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.”

운전하는 것이 일이지만, 기본적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다. 김 기사는 항상 인사하는 손님들은 얼굴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한다. 손님들 중에는 매번 앞자리에 앉아 말을 걸어주거나 칭찬해주는 분들도 있단다. 며칠 전에는 매번 인사하던 한 아가씨가 마스크팩을 선물해주더라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묻어난다. 이런 소소한 승객들의 친절이, 그가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.

하지만, 물론 모든 승객들이 김 기사에게 살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. 가령 김 기사는 버스에 오르는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

를 건네지만 김 기사에게 응대를 해주는 손님들은 별로 없다.

“순남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무표정한 얼굴로 확실히 지나쳐가시면,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. 그래도 가끔 같이 밝게 인사해주시는 분을 만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기운이 나는 느낌이예요.”

김 기사는 ‘무임승차’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. 가끔씩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승객들이 있어서 곤란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. “천 원짜리 지폐를 삼등분해서 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”는 김 기사는, 그래도 경희의료원을 찾는 아픈 어르신들이 단돈 몇 백 원이 모자라 버스 이용을 망설일 때에는 사장님 몰래 그냥 앉으시라고 하기도 한다며 멋쩍게 웃는다.

정신없는 오전에 비해, 학교와 병원의 일과가 끝나는 오후 시간은 비교적 여유롭다. 이 시간대에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회기역 정류장의 비좁은 화장장 문제로 천천히 운행한다. 이때부터 막차 시간까지는 총 3대의 버스가 노선을 달리게 된다.

23시 30분이 되어 막차 운행을 종료하면 김 기사의 하루도 끝이 난다. 집에 들어가면 매번 자정이 넘는 시각. 격일로 일을 하는 김 기사는 비번일 때 부족한 잠을 보충

한다.

“처음 동대문 마을버스 입사 때엔 여성이 하기엔 힘든 일이라며 거절당했지만, 사장님의 배려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동료들과 일을 하는 지금은, 이해도 빠르고 센스도 있다며 칭찬도 많이 받아요.”

회사 내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. 그 덕분인지 최근에는 같은 회사의 동대문02번 버스에도 여성 기사를 채용해 연수 중이라고 한다.

김 기사가 승객들에게 바라는 점은 소박하다. “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어주시는 건 좋지만, 특히 어르신들은 손잡이를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학생들은 수업에 늦을까 다급해 하지 말고 조금 일찍 나와서 여유롭게 버스를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안전사고는 보통 다급한 마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또 교통카드를 찍을 때에는 단말기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이어폰 한쪽을 빼셨으면 좋겠어요.”

간선버스 기사가 되어 더 많은 시민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 김 기사의 소소하지만 큰 ‘소망’이란단다. 당신, 오늘도 혹시 등하곳길에 동대문 01번 버스를 이용한다면, 잠시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김 기사가 건넨는 인사에 환한 미소로 답해보는 것은 어떨까.



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를 무한합니다

자원도, 기술도,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5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.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,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.

위대함을 향해 갑니다

posco